

# MZ세대 10명 중 7명 “같이 살면 가족”

## 광주여성가족재단, 가족 인식 설문

광주 젊은층에서 전통적인 '가족'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혈연 인식이 멀어지고 생계·주거공유·유대감으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26일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지역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가족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청년층과 60대 이상 연령대는 가족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 '혼인·혈연' 관계 넘어 생계·주거 공유·친밀감 중요하게 생각 "생활동반자법" 필요...1인 가구 44.8% "가족 형태로 차별"

20대 이하 연령대는 혈연과 법적 관계에 기반한 가족 인식보다 함께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지닌 사람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법적인 혼인 또는 혈연으로 연결돼야만 가족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70.1%는 '동의한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동의한다'는 답변이 70.3%로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 52.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가족관계 유지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묻는 항목에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관계'라는 응답(남성 25.9%, 여성 24.6%)과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것'이라는 응답(남성 25.3% 여성 22.9%)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재단은 정서적 친밀감이 혼인·혈연관계로 이뤄진 가족만큼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부양이나 돌봄과 같은 상호구속적 성격보다 정서적 친밀감을 우선하는 경향도 감지된다. 20대는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이 법은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성인 두 사람을 생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말한다. 이 법에 대해 '약간 필요하다'고 답한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49.2%로 가장 높았고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족 형태를 이유로 정부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인 가구는 44.8%, 다문화가구는 100%, 장애가구는 43.9%가 '있다'고 응답했다. 차별 내용은 세금(27.9%), 건강보험(20.9%), 일·가정 양립제도(14.4%)순이었다. 재단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족정책을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가족 커뮤니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28) 광주청년유니온 운영위원은 "2030세대에서는 가족이 단순 혈연과 법률적으로 얽힌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성별과 무관하게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을 폭넓게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책정원서 책과 놀아오** 26일 개관한 광주시 동구 내남동 구립도서관 '책정원'에서 어린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 책정원은 지상 3층 연면적 2622㎡ 규모의 도서관으로 2만 3000여권의 도서와 함께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갖췄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국가 명승 '환벽당' 새단장·주변 유적지 발굴한다

## 광주시, 충효동 왕버들군 후계목 이식·동물 보존관 설치 추진

송강 정철(1536~1593)이 머물렀던 광주 충효동 명승 유적지 환벽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을 맞이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국비 29억원을 확보해 국가 유산 보존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유산 국비는 올해 6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광주시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 환벽당의 자연경관 개선과 주변 유적지 발굴, 충효동 왕버들군 후계목 이식,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설립 등 16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강 정철이 학문에 정진했던 곳으로 잘 알려진 환벽당 뒤편에 화계(단마다 화초를 심은 시설)를 설치해 배롱나무와 매화를 심고, 단풍나무길과 어울리는 돌담과 왕대 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환벽당 주변 유물 발굴 조사도 추진해 돌무더기가 길게 이어진 구조물인 석열의 조성 경위를 파악하고 기와편 등 유물을 수습해 앞으로 정밀 발굴과 종합 정비에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시

는 또 충효마을을 지키는 왕버들군 보존을 위해 후계목을 심고, 순환형 관람로를 만들기로 했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조류 충돌 등으로 자연방사가 불가능한 천연기념물 원앙, 수리부엉이 등을 보호하는 동물 보존관도 우치공원에 설립한다. 송영희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올해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해 내년 국가유산 사업 국비를 최대한 확보했다"며 "확보된 재원으로 국가유산 명승 충효동 환벽당, 천연기념물 왕버들군, 동물보존관 등 국가유산 보존과 가치 재창조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 조울증 20대, 부친 살해

조울증을 앓던 남성이 크리스마스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순천경찰은 아버지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9시 10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의 등과 복부를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이후 인근 분식집에 찾아가 "아버지를 죽

였다"고 말하며 횡설수설했고 분식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민지 기자 kdi@kwangju.co.kr

## "의병장 고경명 '제봉 정신' 이어지길"

### 광주 동구 제봉로에 표지석 건립

광주시 동구 제봉로에 고경명(1533-1592) 장군의 호(號)를 딴 표지석이 세워졌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22일 학동 남광주사거리 지하철역 출구에 '제봉로 표지석'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봉(齊峯)은 고경명 장군의 호로, 광주시는 동구 학동에서 대인동을 관통해 북구 중흥동을 잇는 길을 '제봉로'로 부르고 있다. 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의주 피신 소

식을 듣고 호남에서 6000여명의 의병을 모아 금산(현재 충남 금산군)에서 집결해 왜군과 맞서 싸우다 순국했다. 또한 제봉로 일대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전남대병원, 옛전남도청, 남동성당, 옛 광주 MBC, 전남여고 등 사적지도 분포해 있다. 고윤근 고씨 광주·전남 중흥회장은 "고경명 장군의 혼을 담은 표지석이 건립돼 기쁘고 뜻깊다"며 "고 장군의 제봉 정신이 광주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경찰증명 서류, 민원발급기서 발급 시작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3종

경찰청이 26일부터 전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경찰증명 서류 발급을 시작했다. 해당 증명서 3종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이다.

무인민원발급기 메인화면에서 '경찰증명서 선택'→'증명서 3종 중 택1'→'주민등록번호 입력'→'지문인식' 절차를 거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비용은 무료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지하철 역사 등 공공장소에 5564대 설치됐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범	유아교육과		○
	음악학부		○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
총 계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2(금)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원서접수: 2024. 1. 11(목) ~ 24(수)  
전형일: 2024. 1. 26(금) 오후 2시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로 36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1. 3(수) ~ 6(토)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